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 장 16 - 21 절

1. 페이스북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

어떤 분이 페이스북의 사명이 아주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찾아보았습니다. 헌데 이걸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약관에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사(페이스북)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세계를 더욱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습니까? 꽤 멋진 사명 선언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멀리 있는 것만 같았던 세계를 가깝게 하겠다는 것이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사명을 조금만 수정하면 오늘날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나아가 이웃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입니다. 이견

4. 뉴라이프 - 그리스도와 함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인 사명이 따라옵니다. **바로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나 정치 공동체나 문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허물이나 상처나 아픔을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포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경험하는 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고, 복음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는 이웃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파하고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데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2. 왜 사명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3 주간에 걸쳐서 나눈 복음 메시지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과거 어떤 문제가 있었든, 어떤 실패가 있었든, 어떤 죄가 있었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복음은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다.

4. 뉴라이프 -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환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환대하십니다. 식탁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신적인 환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어려울 것이 있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리끼고 어리석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거북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내 과거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나님의 환대를 기가 막히게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게 환대하기 쉽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구원**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구원, 이 단어들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과 순종과 구원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믿음이 가장 앞이라는 것에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헌데 믿음 다음에 순종과 구원 중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하는지 물으면 쉽게 답을 못합니다.

3.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책망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절을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했던 행동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12 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나 베드로는 복음의 자유 가운데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환대의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밥을 먹던 식탁에서 갑자기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고 말합니다. 할례자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먹는 자신을 보고 비난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황급히 피한 것이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가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3 절에 보면,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외식을 합니다. 밖에서 밥을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외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가 막힌 환대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환대를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이런 외식에 유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0 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발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속된 것들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경험한 베드로도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할례자들이 누구이길래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순서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 순종 - 구원

바울의 복음 이해는 할례자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믿음 - 구원 - 순종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허나 그 다음이
다릅니다. 바울은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은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할례자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위치**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례자들처럼 순종을 믿음과 구원
사이에 두게 되면, 이런 순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됩니다.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순종은 늘 두렵거나 교만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율법에 대해 순종을 잘 하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자연스런 반응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핵심입니다.

본문 16 절을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에 대해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 구원 - 순종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럼 믿음과 구원과 순종의 순서를 아셨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믿음과 구원과 순종의 순서가 우리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어느 청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은 A도 괜찮고 B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청년 목회를 하던 시절에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답변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 다양합니다. 가볍게 선택할 수 있는 짬뽕과 짜장 사이의 선택에서부터, 교제의 대상으로 어떤 여성이나 남성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어떤 대학을 결정할 것인지, 뭐 이와 같은 훨씬 무거운 선택도 있습니다.

헌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 이후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 이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긍정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결정을 후회하고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

4. 뉴라이프 - 그리스도와 함께

결국 불행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변의 조언도 듣고, 내 가슴이 뛰는 곳을 향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긍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도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자는 말입니다. 어떤 선택이 되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연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이신칭의 혹은 믿음과 구원과 순종의 순서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자신의 순종과 행함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까? 그것은 마치 자신은 완벽한 선택의 법칙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법칙을 모릅니다.

그저 우연한 은총의 선물로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믿음 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4. 뉴라이프 -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혹시 내 순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은 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서,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아파하십시오. 고민도 하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율법의 규정에 순종할 수 있고,

모든 행복의 법칙을 알고 있고,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받아들이고 견디고 그저 충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뜻밖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아도, 속이 후련하게 풀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20 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4. 뉴라이프 -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감정까지 내어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뜻밖의 은총을, 우연한 구원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낡은 마음에 밝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